



후원문의 1544-9595
www.relief.or.kr



2013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연차보고서

Hope Bridge
Korea Disaster Relief Association
2013 Annual Report



CONTENTS

보고의 말씀	03
2013 국내·외 재해 뉴스	
국내 재해 뉴스	04
해외 재해 뉴스	06
의연금품 보고	
재해 의연금·성금 모금	10
국내 재해 의연금 지원	11
구호물품 지원	12
의연금품 모집·지원	13
사업 보고	
국내 자연재해 긴급 구호사업	16
국내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21
어린이 교육사업	24
기후난민 어린이 살리기 '희망T캠페인'	26
해외 구호사업	28
생명수호지기 선발	30
온라인 사업	31
협회 소개	
걸어온 길	34
조직도	35
임원 및 회원	36


희망브리지

발행인 최학래
발행일 2014년 6월 15일
발행처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주소 [우] 121-856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
TEL 02-3272-0123
FAX 02-3272-0122
디자인 오너트(주) 02-337-3690

Mission

사명

- 우리는 재난 피해자들이 정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물적, 심리적 도움을 줌으로써 희망의 공동체를 구현한다.
- 우리는 공동체와 사회 구성원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를 구현하는 데 최고의 협력자가 된다.

ision

비전

- 자연 재난,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피해자를 돕기 위한 최고의 모금·구호·배분 활동 전문기관.
- 재난 피해자들이 원하는 도움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한 최고 수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신하며 현재와 미래의 재난환경 및 활동을 조사·연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실현하는 데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몸과 마음을 다해 서로 협력하여 공동선을 창출.
- 우리는 공동체와 사회 구성원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를 구현하는 데 최고의 협력자가 된다.

Value

행동가치

- 믿음을 주고 협력하여 하나가 된다.
- 전문능력과 역량 개발의 최고가 된다.
- 자신감을 갖고 주인정신으로 솔선수범한다.
- 창의력, 혁신과 장기적 시각을 발휘한다.
- 수평적 사고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다.
- 목표를 완수하고 책임을 진다.
- 칭찬과 격려 속에 산다.
- 정직하고 윤리적이며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한다.
- 공공성 구현에 노력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현한다.
- 현장과 고객에 초점을 맞춘다.

올해는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22호 태풍 스팟과 23호 피토가 겹쳐서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했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또 15년 만에 찾아온 10월 태풍 다나스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자연재해 피해가 없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충분해, 강력한 태풍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11월에 필리핀을 강타했던 슈퍼태풍 하이옌과 같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재난이 불시에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시기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규모의 자연재해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잘 넘겼지만 2014년도 2015년도 자연재해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년에 닥칠지 후년에 닥칠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피해가 없다고 안심하고, 느슨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심이 될수록 집단속을 더 든든히 하려고 합니다. 구호계획과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희망브리지는 재해의 아픔이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어려움을 당한 분들께 전하는 희망의 다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최학래

2013 국내 재해 뉴스

01 포항·울산 산불

3월에 접어들면서 며칠째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9일 발생한 경북 포항시 용흥동 탑산 산불은 17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산불로 인해 사망 1명, 부상 14명, 이재민 118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밤 울산 울주군 언양읍과 상북면 일원에서도 큰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을 끄는데 4,300여 명이 투입됐지만 강한 바람으로 산불은 20여 시간 뒤인 10일 오후 늦게야 완전 진화됐다. 이 산불로 가옥 23채와 축사시설, 창고, 소나무 등 산림 50ha가 불에 타고, 닭 350마리 등 가축 수백 마리가 폐사했다.

02 춘천 폭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춘천에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효자동과 운교동 일대 주택가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22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다.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공지천 효자교 일대 저지대가 침수돼 주택 42채가 물에 잠겼고,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전봇대와 가로수가 쓰러졌고, 곳곳에서 축대 붕괴와 토사 유출이 일어났다.

03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7월 18일 오후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에서 마련된 시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던 충남 공주소대부고 2학년 학생 5명이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해상훈련을 받다가 바닷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공주소대부고는 공인도 받지 않은 시설업체에 수련 활동 전부를 일괄 위탁하면서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책방안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인솔교사들은 수련 과정을 모두 교관에게 맡기라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 수련 과정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04 폭염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폭염에 열대야가 겹치면서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1,195명이나 발생해 이 중 14명이 목숨을 잃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또 이 기간에 705농가에서 가축 200여만 마리가 폐사했다. 제주도는 아침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난 날이 52.5일, 남부 지방은 18.7일로 1973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강릉 아침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30도를 넘어서면서 초열대야란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05 태풍 25호 '다나스'

1998년 이후 15년 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10월 태풍 제24호 '다나스'가 10월 8일 제주 동쪽을 거쳐 대한해협을 지나 9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 애초 우려했던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제주 및 부산 경남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과 서흥동 일대에서는 강풍으로 1천750여 가구가 정전피해를 입었고, 부단 동래 연안교 지하차도와 세명교 등은 침수됐다. 여객선 74개 항로와 148척의 운항이 통제됐으며 김포와 김해, 제주 공항 등 항공기 109편이 결항됐다.



2013 해외 재해 뉴스

01 미국 오클라호마 토네이도 강타

5월 20일(현지시간) 오후 2시56분께 오클라호마를 덮친 토네이도는 기상청의 첫 번째 경고가 나온 뒤 16분 만에 몰아닥쳤다. 지상에 40분간 머물며 30여km를 이동한 토네이도는 오클라호마시티와 무어의 지역 일부를 초토화시켰고,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최소 24명이 사망했다. 5월 31일(현지시간)에 오클라호마와 미주리에 시속 145km의 강풍과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또다시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02 중부 유럽 홍수

독일, 체코공화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중부 유럽(Central Europe)이 심각한 홍수피해로 몸살을 앓았다. 6월 3일부터 1주일이 넘게 계속된 홍수로 인해 21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긴급 대피했다. 독일 엘베강 제방의 일부가 무너져서 강 주변의 10개 마을에 긴급 대피령을 내리고, 병력까지 투입했지만 가옥과 건물이 침수되고, 철도까지 끊겼다. 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관통하는 다뉴브강 수위는 50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위까지 올라갔다.

03 인도 북부 홍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위치한 힌두교 성지 밀집지역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에 6월 16일과 17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4,000곳이 넘는 마을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곳을 방문 중이던 순례자와 관광객 등 5,700여 명이 실종되어 사망 처리됐다. 예년보다 우기가 2주 일찍 찾아오면서 주민들이 홍수에 미처 대비할 시간이 없었던 터라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04 독일 우박 동반 폭우·폭풍

7월 27일(현지시간) 독일 워셀 지역에서 굵은 우박이 쏟아져 큰 피해가 났다. 크기 10cm 정도의 테니스공만한 얼음 덩어리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해 건물 지붕과 창문, 차량 등이 훼손됐다. 우박은 바닥에 닿자마자 다시 공처럼 사방으로 튀어 올라 일반 가정집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시설도 많은 피해를 봤다. 전문가들은 피해가 수백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05 슈퍼 태풍 '하이옌'

사상 최악의 초대형 태풍 '하이옌'이 11월 8일 필리핀 중부지방을 강타해 일대가 초토화됐다. 중국어로 '바다제비'를 의미하는 하이옌은 순간최대풍속이 시속 379km(초속 105m)로 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슈퍼태풍으로 꼽힌다. 하이옌이 상륙한 레이테섬의 주도 타클로반은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어 폐허로 변했다. 또 6천여 명이 숨지고 1천779명이 실종되는 등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무려 400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하이옌을 2013년 세계 최악의 재해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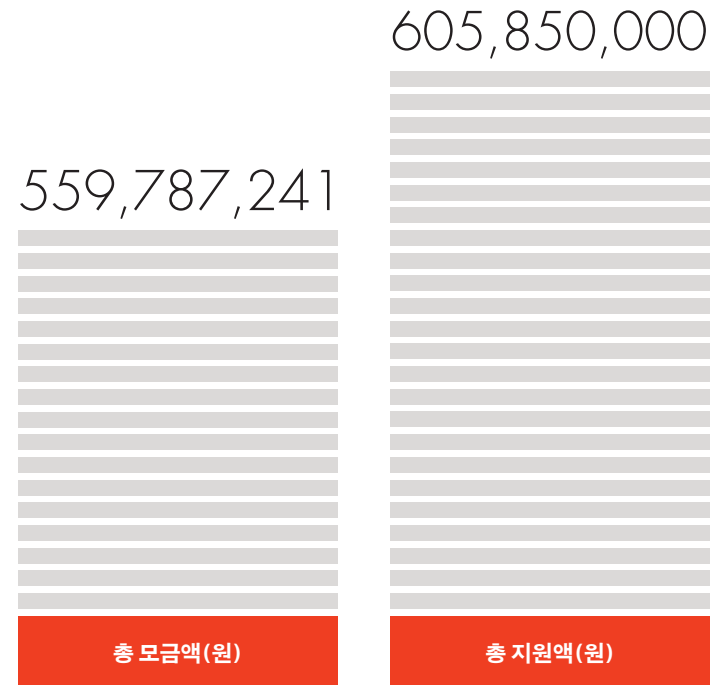
의연금품 보고

- 재해 의연금·성금 모금
- 국내 재해 의연금 지원
- 구호물품 지원
- 의연금 모집·지원

재해 의연금·성금 모금

희망브리지는 태풍, 홍수 등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지역 이웃들이 하루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보내온 성금과 각종 구호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1961년부터 53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의연금과 의류, 식품, 생수,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모아 재해와 재난으로 고통을 받는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희망브리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2013년 성금 (모집·지원 요약)



집중호우 피해 의연금 모금
 모금 기간 2013년 7월 15일 ~ 10월 31일
 모금액 68,888,200원
 기탁자별 모금액 기업체 : 1,491,000원
 공무원 : 56,173,000원
 일반인 : 11,224,200원

산불피해 성금 모금
 모금 기간 2013년 4월 3일 ~ 30일
 모금액 150,250,100원
 기탁자별 모금액 기업체 : 9,900,000원
 일반인 : 350,100원
 기타 : 140,000,000원

필리핀 태풍 피해 성금 모금
 모금 기간 2013년 11월 14일 ~ 12월 31일
 모금액 328,392,695원
 기탁자별 모금액 기업체 : 155,323,531원
 학교·단체 : 70,145,570원
 일반인 : 102,923,594원

상시 기탁 모금
 모금 기간 2013년 1월 1일 ~ 12월 31일
 모금액 12,256,246원
 기탁자별 모금액 일반인 : 12,256,246원

국내 재해 의연금 지원

7월 집중호우
 (2013년 7월 11일 ~ 15일, 22일 ~ 23일 피해 발생)
피해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총 5개 시·도
인명 피해 4명(사망 4명)
주택파손 피해 25세대 (전파 8세대, 반파 17세대)
주택침수 피해 1,307세대
농어가 피해 333세대
의연금 지원 605,850,000원 (전통시장상품권 지원액 80,850,000원 포함)
지원일 2013년 9월 12일 ~ 26일
지원 결정 제26차 배분위원회 (2013년 9월 11일)

지역별 의연금 지원

구분	계	인명피해		주택피해			생계지원
		사망/실종	부상	전파	반파	침수	농어업인
서울	세대 (명)	69	1				68
	금액 (천 원)	30,350	10,000				20,350
인천	세대 (명)	72	1				69
	금액 (천 원)	31,250	10,000				20,700
경기	세대 (명)	1,273	2	3	12	929	327
	금액 (천 원)	435,750	20,000	15,000	25,000	277,650	98,100
강원	세대 (명)	254		5	5	240	4
	금액 (천 원)	108,200		22,500	12,500	72,000	1,200
경북	세대 (명)	1					1
	금액 (천 원)	300					300
합계	세대 (명)	1,669	4	8	17	1,307	333
	금액 (천 원)	605,850	40,000	37,500	37,500	391,000	99,850





구호물품 지원

재해 상황에 효율적인 구호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한 협회용 구호세트와 식료품, 의류,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파주와 함양에 위치한 재해구호물류센터에 비축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피해지역에 전달합니다.

사업 기간

2013년 1월 ~ 12월

생활안정을 위한 주방용품 세트 지원

주방용품 110세트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한

식품 및 생수 지원

식품 300박스,
생수(2리터들이) 3,600병

산불 피해 세대

구호세트 및 주방용품 세트 지원

구호세트 105세트, 주방용품 60세트

재난위기가정 지원

주방용품 192세트

폭염 피해 긴급구호물품 지원

생수(2리터들이) 43,200병,
선풍기 500대, 쿨스카프 3,000점

의연품 모집·지원

뜻하지 않은 재해로 어려워하는 피해 이웃들에게 필요한 구호물품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으로부터 의연품을 모아 전달합니다.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의류, 식품,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모아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칩니다.

사업 기간

2013년 1월 ~ 12월

산불 피해 지원

생수 210병, 전기매트 20점

재난위기가정 지원

장판 3점, 전기매트 20점

폭방촌 생활안정 지원

양념통세트 42점

기타(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생필품(의약) 1,873점

해의(라오스) 소외계층 지원

침구류(모포) 200점,
신발류 856켤레, 수건 250점,
생필품(고무장갑, 세제류 등) 5,240점



사업 보고

국내 자연재해 긴급 구호사업
국내 재난위기 가정 지원사업
어린이 교육사업
기후난민 어린이 살리기 '희망T캠페인'
해외 구호사업
생명수호지기 선발
온라인 사업

긴급 구호물품 지원사업

2013년 여름 울산에서 최고 기온 40도를 기록하는 등 15일 가까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이 강타하면서 불볕더위에 따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폭염 취약대상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더위를 식히는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지원 현황

울산광역시 선풍기 200대, 쿨스카프 1,500개, 생수 6,000병
경북 선풍기 300대, 쿨스카프 1,500개, 생수 37,620병

지원일 2013년 8월

임시주택 지원

뜻하지 않은 재해로 갑작스럽게 집이 완전히 파손되어 불편을 겪는 피해 주민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임시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시주택은 이동과 설치가 편리한 6m×3m(약 5.5평) 크기의 조립주택으로 성인 2~3명이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내부에 전기·통신,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 소화기 등의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공인 시험기관의 검사를 통과한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 하절기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 기간 2013년 1월 ~ 12월
울산 울주군 산불 피해가구 20동 지원
2012년 지원된 해남군 임시주택 3동 회수
함양군 임시주택 1동 회수





재해지역 세탁봉사

갑작스러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의 오염된 의류와 이불 등을 이동식 세탁구호차량을 통해 무료로 세탁해줍니다. 세탁구호차량은 18kg 세탁기 3대, 건조기 2대가 장착된 5톤급 특장차 2대와 18kg 세탁기 3대, 23kg 건조기 3대가 장착된 7.5톤 차량 1대 등 모두 3대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세탁구급차량 1대당 각각 1,000kg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에 2대, 함양재해구호물류센터에 1대씩 배치해 운영합니다.

사업 기간 2013년 7월 15일 ~ 16일
세탁봉사 지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삼청동
세탁량 25세대 분량

집수리 봉사

뜻하지 않은 재난재해 피해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피해지역과 재난위기가정을 희망브리지 봉사단이 직접 찾아가 도배, 장판 교체 등 도움을 줍니다. 협회의 대표 구호사업으로 정기봉사를 통해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해 시뿐만 아니라 비재해 시에도 협회의 활동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옥션과 함께 재난·재해에 취약한 집을 수리해주는 봉사활동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합니다.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단 '희망브리지 봉사단'과 옥션 고객봉사단 '나눔패밀리'가 연간 4회에 걸쳐 진행하는 연간행사입니다.

사업 기간 2013년 1월 ~ 12월
집수리 봉사 지역 전국 21개 지역
집수리 봉사 실시 가구 224가구
집수리 봉사 참여 인원 1,792명
 * 집수리 로드 실적은 제외했습니다.

국내 재난위기 가정 지원사업

우리나라에는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한해 평균 27,000여 명이고, 이들 중에는 연소득 500만 원 미만의 절대 빈곤층이 34.7%에 이릅니다. 또한 재난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정 특히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한 상황에 놓여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재난위기 가정이 많습니다. 희망브리지는 재난위기 가정이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위기 가정 지속 돌봄 사업

재해지역 이재민 중 특히 생활이 곤란한 재난취약세대(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세대, 독거세대, 조손세대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식을 달리하여 일괄 지원이 아닌, 희망브리지 봉사단이 지원세대를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 각 세대 별로 다르게,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요청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시범적으로 서울 마포구 13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각 세대별로 100만 원 가량의 물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원 현황 마포구 재난위기 가정 13세대 지원
지원 내용 1년간 세대별 100만 원 상당 물품 지원
사업 기간 2013년 7월 ~ 2014년 6월



제3회 재난위기 가정 집수리 로드 자원봉사

현대건설과 함께 뜻하지 않은 재난재해 피해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지역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제3회 재난위기 가정 집수리 로드 자원봉사'가 현대자동차그룹 후원으로 7월 19일부터 31일까지 12박 13일 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수리 로드에는 6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전북 부안군을 시작으로 전남 강진군, 경남 사천시, 경북 울진군,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 5개 지역을 돌며 도배, 장판 등 집수리, 세탁봉사, 마을 벽화 그리기, 장수사진 촬영 등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업 기간	2013년 7월 19일 ~ 31일(12박 13일)
봉사 장소	전북 부안군, 전남 강진군, 경남 사천시, 경북 울진군, 강원도 강릉시
봉사 활동 상세 내역	집수리 113세대 수리
장수(영정) 사진 촬영	640명
세탁봉사	8,800kg 세탁
벽화봉사	부안, 강진, 사천, 울진, 강릉시 등 5개 지역 마을에 총 700m ² 그리기 실시

어린이 교육사업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부모로부터 따뜻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재난위기 가정의 어린이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지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일상에서 재난대비 방법을 익히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재해예방 인형극 '우리는 안전짱 친구들' 공연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재해를 이해할 수 있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한 재해예방 인형극 '우리는 안전짱 친구들'을 희망브리지 봉사단 서울시립대 봉사동아리 'Yes Ous' 회원들이 5~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직접 찾아가 공연합니다. 동화 <양치기 소년>을 이야기 모델로 숲 속 마을 동물친구들이 일상에서의 재해대비 방법과 태풍, 집중호우 등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노래와 율동 등을 통해 재미있게 알려줍니다.

사업 기간 2013년 4월 29일 ~ 12월 2일
공연 대상 5~8세 어린이 및 미취학 아동
공연 장소 수도권에 위치한 가로 3m 이상 되는 교실 혹은 강당
공연 시간 30분 내외 (공연 후 간단한 재난대비 교육 실시)
관람 인원 1,580명

사랑의 집 저금통 캠페인

사랑의 집 저금통 1천 개가 모이면 새로운 집을 지어줄 수 있다는 콘셉트로 사랑의 집 저금통 모금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집 모양의 저금통에 모아둔 동전을 모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보내주면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이웃을 돕는데 쓰입니다. 펠티 인형극 '허미와 친구들, 너는 나의 소중한 친구야' 공연장, 이승은·허현선 작가의 "엄마어렸을 적엔..." 전시회, 서울 캐릭터·라이선싱 페어 2013, 피크닉 클래식 인 서울, 제4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등에서 '사랑의 집 저금통'을 배포했습니다.

사업 기간 2013년 1월 1일 ~ 12월 31일
배포 장소 서울·경기 지역 행사장



기후난민 어린이 살리기 '희망T캠페인'

기후난민 어린이 살리기, 희망T캠페인은 자연재해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은 전 세계 기후난민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입니다. 자연재해 지역의 기후난민 어린이들은 심각한 영양부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T캠페인은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된 기후난민 어린이들에게 구호품이자 선물이 될 T셔츠와 함께 영양결핍 상태의 어린이가 1주일간 먹고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영양결핍 치료식을 전달해 기후난민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 희망T키트를 활용해 직접 희망의 메시지를 그림으로 담은 엽서와 함께 희망T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보내면 나눔이 완성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희망T키트에는 7일분의 영양결핍 치료식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2013년 5월 런칭하여 한해 동안 5,800명이 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희망T캠페인

희망T키트를 교구재로 활용하여 '미술교육'에 접목한 '나눔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를 찾아가는 희망T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희망T캠페인은 기후변화 학습, 인성 계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1석 3조의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티셔츠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기후변화와 기후난민에 대해 학습하면서 기후난민 어린이를 구호하는 나눔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특별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진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교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2013년 4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참여 학생 전국 초·중·고·대학생 1,049명



기업 및 시민이 참여한 희망T캠페인

기부 활동과 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4,824명(기업 및 시민)이 희망T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각 기업과 단체는 봉사 활동, 신입 사원 오리엔테이션, 직원 연수 프로그램, 단합대회 등 다양한 목적과 행사로 희망T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단체 참여 시 희망T캠페인 자원봉사자 그룹인 '희망 캠페이너 리더'가 기후변화와 기후난민 어린이가 처한 현실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으며, 설문 결과 98% 이상의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T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은 체력과 노력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 수혜자(기후난민 어린이)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만족했습니다. 또 멀게만 느껴지는 기후변화와 기후난민의 현실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업 기간 2013년 5월 4일 ~ 2013년 12월 31일
참여 기업 서울메트로, 삼성물산, 우리투자증권 외 총 26개 기업 및 시민 4,824명(후원액 기준) 참여
 * 홈앤쇼핑 희망T키트 1만 개 제작 후원



희망T캠페인 캠페이너 리더 활동

희망T캠페인은 전문 봉사자 그룹인 캠페이너 리더들의 협력으로 만들어 갑니다. 캠페이너 리더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희망T캠페인의 공식적인 봉사자 그룹으로서 희망T키트를 조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캠페인의 기획, 실행, 현장 활동에 이르기까지 희망T캠페인의 참여와 확산 전반에 아우르는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1기로 시작한 캠페이너 리더들은 희망브리지의 리더 양성 아카데미를 통해 전 세계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상관관계 및 저개발 국가들의 피해현황을 이해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서 인식의 변화를 통한 즉각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가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캠페이너 리더 1기 주요 활동 일지
 2013년 9월 14일 캠페이너 리더 오리엔테이션
 2013년 11월 16일 ~ 17일 캠페이너 리더 양성 아카데미
 2013년 9월 14일 ~ 12월 31일 학교 및 기업 참여의 희망T행사 진행, 다양한 시민 참여 나눔 행사 운영, 희망T키트 포장 및 우송T 정리 등 67명의 캠페이너가 참여하여 1,430시간의 캠페인 활동 전개

해외 구호사업

희망브리지는 국내 재해 피해 이웃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 재난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구호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자연재해로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에서 별다른 지원 없이 열악하게 살아가는 해외 소외계층 사람들의 생활환경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돌봄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홀·막탄 쓰레기마을·팡아난섬 구호활동

2012년 모금한 필리핀 수해 피해 성금과 희망T캠페인에 참여한 후원금으로 10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필리핀 보홀섬을 비롯해 빈민가인 팡아난섬과 막탄 쓰레기마을을 돕는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보홀섬의 지진 피해 이재민 500가구에 '매트'와 '모기장', '천막', '담요' 등으로 구성된 임시천막키트를 구호품으로 제공했으며 희망T 300벌을 지원했습니다. 또 홍수 피해 후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막탄 쓰레기마을 주민들을 위해 300명 분의 빵과 영양식을 전달했으며, 이곳 어린이들의 위생보건을 위해 목욕봉사와 보건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또 팡아난섬 주민들을 위해서는 300명 분의 영양식과 생계 지원 사업으로 염소 6마리, 오리 36마리, 어린이들에게 희망T셔츠 250벌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명 지진피해 지역 구호 및 희망T캠페인 지원사업
사업 기간 2013년 11월 4일 ~ 10일
지원 현황 필리핀 보홀섬, 막탄 쓰레기 마을, 팡아난섬 1,200세대

필리핀 태풍 하이엔 피해지역 반타안·바사이군 긴급 구호

2013년 11월에 발생한 태풍 하이엔으로 인해 200만 세대가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필리핀의 태풍피해지역에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11월 14일부터 시작한 현지조사를 거쳐 현지에서 쌀, 말린 생선들을 구입하여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세부 북부 반타안과 바사이군의 산안토니오 마을과 칸사이셔스 마을의 1,450세대에 쌀과 말린 생선, 설탕, 식용유, 방수천막 등을 지원했습니다. 희망브리지가 긴급 구호에 나선 지역은 필리핀 정부나 국제구호단체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사망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긴급식량뿐만 아니라 날아간 지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수천막과 생리대, 칫솔 등 생활용품을 함께 지원했습니다.

사업 기간 2013년 11월 14일 ~ 25일
지원 현황 반타안군 구이완 250세대
 바사이군 산안토니오 900세대
 바사이군 칸사이셔스 300세대

해외 소외계층 구호물품 지원

포스코건설과 함께 해외 소외계층에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포스코건설 남력 수력발전소 현장이 있는 라오스 비엔티안시 폰홍군을 방문해 이 지역 소외계층에게 침구류(모포) 200점, 신발류 796켤레, 수건 250점, 생필품 5,204 점 등 총 6,450점의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구호물품은 20피트 컨테이너 1개 분량이 지원됐습니다. 구호물품 출고는 2013년 11월 ~ 12월에 이루어졌고, 전달식은 2014년 1월 7일 라오스에서 가졌습니다.

베트남 전달식 2014년 1월 7일 라오스 비엔티안 폰홍군
구호물품 6,450점

생명수호지기 선발

희망브리지는 소방방재청과 함께 2013년 한해 각종 재난(자연·인적·화재 등) 현장에서 남다른 희생정신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구한 재난영웅 10명을 '생명수호지기'로 선발해 상패와 총 3,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생명수호지기'는 관할 지자체에서 실사과정을 거쳐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2013 생명수호지기 大賞'은 물에 빠져 위험에 처한 대학생 3명을 구조한 후 응급조치로 생명을 구한 오홍원(59) 씨가 수상했습니다. 또 해상으로 추락한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한 김민철(36) 씨, 우편물 배달 도중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서 주민대피 및 가스통을 옮겨 대형화재를 예방한 전호진(36) 씨, 고속도로에서 불길에 갇힌 운전자를 구한 황영규(50)·박용식(51)·류현덕(52)·박명자(58)·우미숙(50)씨, 우편물 배달 도중 화재현장에서 주민대피 및 화재를 진압한 곽자용(54)·박현규(49) 씨로 총 9명이 '2013 생명수호지기賞'을 수상했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최학래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위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 변호사
	배석규	YTN 사장
	이효정	좋은사회를 위한 100인사회 이사장
	김계조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김동현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박두석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조승래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2013년 12월 13일 전국재해구호협회회관 회장실

시상식 개최

일시 장소 2013년 12월 31일 소방방재청 마중물터
포상금 30,000,000원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 개편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영문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했고, 모바일 및 태블릿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모바일 홈페이지도 처음으로 구축했습니다.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용자의 PC 및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를 비롯한 사용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텍스트 중심의 메인 화면을 이미지 중심으로 변화시켜 시각적 집중도를 높였고,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제작 기간 2013년 1월 2일 ~ 7월 13일

희망 나눔 블로거

매학기 대학교 학점연계 온라인 봉사단을 꾸려 기후 변화, 자연 재해와 관련된 내용을 희망브리지 온라인 블로그에 담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재해 관련 정보와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감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재능 기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 2013년 4월 ~ 12월(2013학년도 1학기, 여름 계절학기, 2학기)
활동 학교 이화여대, 건국대
포스팅 수 140개





협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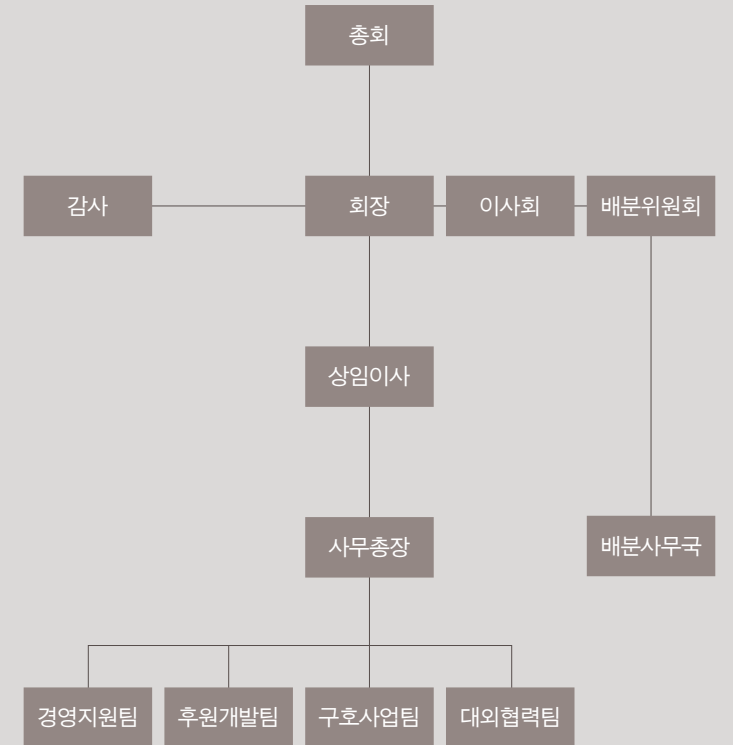
걸어온 길
조직도
임원 및 회원



창립 1961 국내 유일의 법정 재해구호단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갑작스런 재해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기 위해 1961년 전국의 방송사와 신문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 구호단체입니다. 1959년 840여 명의 사망자와 37만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태풍 '사라' 피해 돕기 모금운동을 계기로 '전국수해대책위원회'로 첫걸음을 내딛고, 1964년 '전국재해대책협의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펼치며 우리 사회에 최초로 나눔 문화를 뿌리내렸습니다. 지난 2001년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국내 유일의 법정 재해구호단체로 제도약한 희망브리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희망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조직도



걸어온 길

1961

전국수해대책위원회 조직, 전국재해대책위원회 발족

1966

사랑의 열매 달기 캠페인 전개, 첫해에 500만 개 판매

1977

이리역 화약폭발사고 피해지역에 구호품 100여만 점 전달

2001

호우 피해지역에 280억 원 지원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법정 구호기관이 됨

2003

태풍 '매미' 피해지역에 1,048억 원 지원 대구 지하철참사 피해자에게 670억 원 지원

2006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의연금 배분의 총괄기관이 됨

2008

서해안 기름유출 및 호우 피해지역에 44억 원 지원

2010

태풍 '곤파스' 및 호우 피해지역에 370억 원 지원

2012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 피해 지역에 230억 원 지원

1964

전국재해대책협의회로 개칭

1967

7월을 '재해구호의 달'로 지정

1993

냉해 피해 지역에 200억 원 지원

2002

태풍 '루사' 피해지역에 1,299억 원 지원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명칭 변경

2005

강원도 양양 산불 및 태풍 '나비' 피해지역에 118억 원 지원

2007

태풍 '나리' 및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지역에 329억 원 지원

2009

강풍 및 호우피해 지역에 88억 원 지원

2011

연평도 포격피해 지역에 37억 원 지원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지역에 410억 원 지원 희망브리지비선포

2013

'기후난민 어린이 살리기, 희망' 캠페인 런칭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6억 원 지원

임원 및 회원


직위	성명	소속
회장	최학래	한겨레신문 고문
	길환영	KBS 사장
부회장	안광한	MBC 사장
	송필호	중앙일보사 부회장
이사	고경석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김석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前 사무총장
	박재만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박진열	한국일보사 사장
	배석규	YTN 사장
	백승현	백승현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
	윤수경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이웅	한국신문인크(주) 前 대표이사
	이웅모	SBS 사장
	임수흠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장
	자승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총무원장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채수연	한국퇴직교원총연합회 상임대표
한중광	한국방송인회 부회장	


직위	성명	소속
감사	백복순	한국교원총연합회 사무총장
	서문훈	회계법인 바른 부대표
회원	강대진	전국극장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삼환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대표
	김상현	NHN(주) 대표이사
	김성기	국민일보사 사장
	김재호	동아일보사 사장
	남부원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사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숙미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송영승	경향신문사 사장
	오영수	제주일보사 회장
	이병규	문화일보사 사장
	이중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철휘	서울신문사 사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사 회장
	장일환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조한규	세계일보사 사장	
차경애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최원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나눔은
세상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나눔참여를 클릭합니다
www.relief.or.kr

 문자로 희망 메시지를 전합니다
#0095 1건당 2,000원

 후원자가 되어 사랑을 실천합니다
1544-9595

 콩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happylog.naver.com/1365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www.facebook.com/relief.sos
twitter.com/relief_sos

후원문의 1544-9595 www.relief.or.kr
[우]121-856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 TEL 02-3272-0123